



전기안전공, 군 의료시설 전기안전 강화 ‘맞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30일, 성남시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국군의무사령부와 ‘의료시설 전기설비 안전확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배계섭 안전이사(오른쪽)가 지난 30일 국군 의무사령부 이상호 사령관과 ‘의료시설 전기설비 안전 확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에쓰오일, ‘강한수 장학회’ 28년간 나눔 조명

에쓰오일은 공식 블로그 ‘에쓰오일 스토리’를 통해 임직원 가족이 수십 년간 이어온 나눔 실천 사례를 1일 소개했다. 이번 사례는 에쓰오일 강민수 감사본부장의 부친인 강삼병 회장이 설립·운영해 온 ‘강한수 장학회’의 선행 사연이다. 장학회는 1998년 설립 이후 약 28년간 홍익대학교 R OTC 후보생 140여 명을 비롯해 지난해 기준 총 203명의 장학생을 배출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업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에쓰오일



한국타이어, ‘마이애미 E-PRIX’ 대회 성료

한국타이어는 자사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는 전기차 레이싱 대회 ‘ABB FIA 포뮬러 E 월드 챔피언십’(이하 포뮬러 E) 시즌 12의 제3라운드 ‘2026 마이애미 E-PRIX’가 31일(현지시간) 마이애미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대회 기간 현장에 ‘팬 빌리지’를 운영하며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과 전기차 레이싱 타이어 ‘아이온 레이스’ 전시 등 북미 현지 고객들과의 브랜드 접점을 강화했다.

/한국타이어



KB금융그룹-복지부,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점검

KB금융그룹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와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참이랑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야간 연장돌봄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KB금융,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등 사업 시행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야간 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살피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KB금융그룹



NH농협은행, 서울역 무료급식 배식봉사 활동

NH농협은행은 지난달 30일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따스한채움터’를 찾아 무료급식 배식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우리쌀을 후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현주 부행장(왼쪽)을 비롯한 개인금융부문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배식에 나서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NH농협은행

현대차 투자 영화 ‘베드포드 파크’ 美 영화제 수상

현대차, 글로벌 콘텐츠 영향력 강화
선댄스 영화제 ‘데뷔장편상’ 수상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콘텐츠 산업에서 브랜드 영향력을 강화했다. 현대차는 투자자로 참여한 첫 독립 장편영화 ‘베드포드 파크’가 제42회 선댄스 영화제 미국 드라마 경쟁 부문에서 심사위원 특별상 중 하나인 ‘데뷔장편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선댄스 영화제는 북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독립영화 축제로 1978년 설립 이후 혁신적인 스토리텔링과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해왔다. ‘베드포드 파크’는 인물의 상처 치유 및 관계 회복을 진정성 있게 담아낸 연출력과 문화적 정체성을 섬세하게 표현한 배우 손석구와 최희서의 연기가 만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차가 투자자로 참여한 첫 독립 장편영화 ‘베드포드 파크’의 주요 스틸컷.

뉴저지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이민자 가정의 고립감을 느끼고 미국인으로서는 정체성에 갈등하며 살아온 ‘오드리(최희서)’가 어머니의 자동차 사고를 계기로 우연히 전직 레슬링 선수 ‘일라이(손석구)’를 만나게 되면서,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깊은 유대와 사랑을 쌓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베드포드 파크’는 현대차가 2024년 공개한 단편영화 ‘밤낚시’에 이어 배우 손석구와 선보이는 두 번째 시네마틱 협업이다. 첫 협업인 ‘밤낚

원자력환경공, 방사능분석 평가 최고등급

국제원자력기구 평가 첫 참가
감마선방출핵종 5종 모두 A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관하는 2025년 방사능분석 숙련도 평가에 처음으로 참가해, 전 항목 A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 세계 100여 개 IAEA 회원국, 약 550개 실험실이 참여해 방사능 분석 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검증하는 국제 공인 시험이다. 공단은 지난해 7월 IAEA로부터 제공받은 물 시료를 분석해 10월 결과를 제출했으며, 감마선방출핵종 5종 분석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공단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방사성 폐기물 핵종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향후 분석 대상 핵

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주관한 방사능분석 능력평가에서도 8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한편 공단은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주변과 방폐물 해상 운반 경로를 대상으로 토양·해수 등 24종의 시료를 119개 지점에서 채취해 연간 약 2750건의 방사선 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방폐물 분석센터가 국내 핵종분석 분야를 선도해 산업생태계 육성과 안전한 방사선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16기 모집

‘경험 창업자’ 선발 제도 도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유망 청년 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청년창업사관학교 16기 입교생을 모집한다.

1일 중진공에 따르면 청창사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정해 창업공간·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 등 창업 전 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패키지 지원하는 핵심적인 창업 육성 사업이다. 중진공은 이를 통해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 정책자금·수출·판로 등 정책사업 연계까지 창업의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청년 기술창업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1년 개교한 청창사는 올해로 16년차를 맞이했으며 현재까지 총 9319명의 청년 창업자를 배출했다.

올해부터 청창사는 청년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의 초기 사업화 성공과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해 기존의 단일 기본과정에서 기본과정과 딥테크·글로벌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개편 운영한다. 특히, 청년 창업자의 재도전 확대를 위해 창업 관련 경험을 갖춘 ‘경험 창업자’를 선발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청창사는 전국 19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본과정 16곳, 글로벌·딥테크 심화과정 3곳(서울, 광주, 경산)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김승호 기자 bada@

박찬흠 한림대 교수, 우주항공청 표창

‘차세대 중형위성 3호’ 개발 기여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체 실려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최근 우주항공청에서 한림대학교 박찬흠 미세생리시스템연구소장(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사진)이 ‘차세대중형위성 3호’ 개발 기여자 유공분야 표창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박찬흠 교수는 차세대중형위성3호에 탑재된 ‘바이오캐비넷’을 개발하는 등 인공위성 탑재체를 연구해 왔다.

바이오캐비넷은 무게 55kg, 크기 790×590×249mm로 바이오 3D 프린터와 줄기세포 분화 배양기를 포함한 첨단 바이오 연구 탑재체다. 우주 공



간에서 생체 조직을 신속히 제작하고 줄기세포 분화를 확인하는 ‘우주 의료 기술’을 실증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우주 환경에서 자동으로 인간의 인공 심장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실제로 지난해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에 실려 우주로 향했다.

지구에서는 질환 발생 시 즉시 치료가 가능하지만 우주에서는 신속한 진료와 치료제를 찾기 어렵고 지구 귀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빙그레, 취약계층에 난방용품 후원

대한적십자사와 협력

빙그레가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혹한기 취약계층 종합 구호활동에 난방 용품을 후원했다고 1일 밝혔다.

빙그레는 혹한기 재난위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약자, 어린이 등 혹한기 취약계층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난방 텐트 약 4000매를 후원했다. 후원 물품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주, 천안, 논산, 김해, 남양

주, 경기 광주, 서울 등 각 지역 재난취약계층에 전달됐다.

이번 난방 용품 후원은 빙그레와 대한적십자사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종합구호활동의 일환으로 한파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마련됐다. 종합구호활동에는 후원 물품 전달을 포함해 정서 지원, 건강 상태 등 재난취약계층을 점검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한국외대** △부총장(서울) 겸 미네르바대학장 전학선 △부총장(글로벌) 권혁재 △산학연계부총장 박준찬 △미래위원회 위원장 이준 △교무처장(서울·글로벌) 홍종명 △학생·인재개발처장(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서울) 신근혜 △학생·인재개발처장(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글로벌) 김민형 △행정지원처장(서울·글로벌) 윤승영 △기획조정처장 정석오 △대의협력처장 김강석 △연구산학협력담당장 전종근 △정보처장 신찬수 △대학원교학처장 김현정 △홍보

실장 지성욱 △교육혁신원장 김사훈 △일반대학원장 정성호 △통번역대학원장 황지연 △국제지역대학원장 김찬완 △법학전문대학원장 최철 △TESOL대학원장 최호성 △서양어대학장 정민영 △사범대학장 김의수 △AI융합대학장 박정식 △인문대학장 김상범 △통번역대학장 이상엽 △경상대학장 박기봉 △공과대학장 김동식 △Culture & Technology융합대학장 박성희 △학보 편집인 겸 주간 이상빈 △도서관장(서울·글로벌) 김상헌